



수입식품 규제혁신 성과 및 3.0 과제

2024.5.21. ~ 2024.5.24.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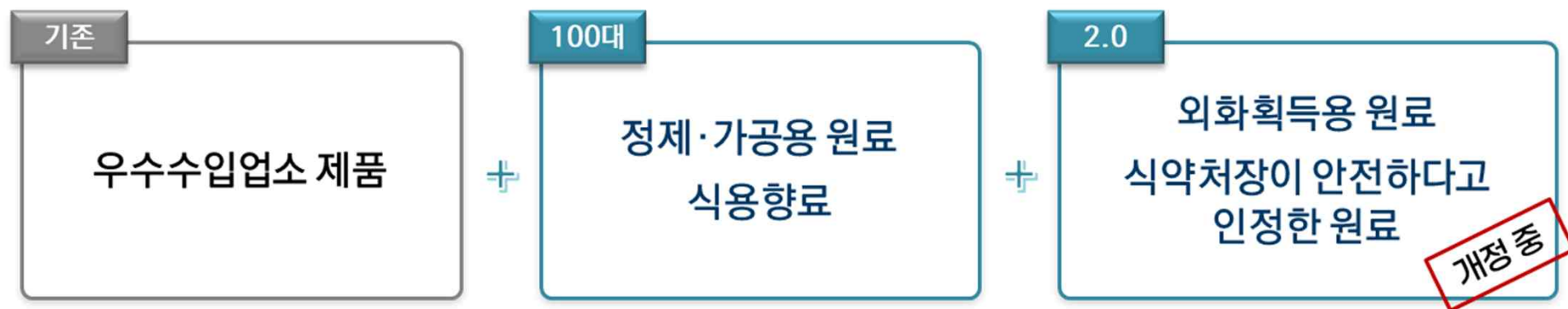




1. 수입식품 규제혁신 주요 성과

수입식품의 신속통관 지원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안전성이 확인된 제조용 원료의 신속통관을 허용하여 통관 소요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
원활한 원료 수급 및 물가안정 지원

수입식품의 신속통관 지원

수입 축산물 검사기간 단축

기존

- ▣ 정밀검사: 18일
- ▣ 무작위표본검사: 18일



개선

- ▣ 정밀검사: 14일
*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무작위표본검사: 14일
* 조제유류를 제외한 냉장보관 축산물 7일
(리스테리아 및 다이옥신 검사대상 10일)
*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개정 중

시험분석 장비 및 시험기법 고도화로 **수입축산물 검사 처리기한 단축**

규제외교를 통한 K-푸드 수출 저변 확대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기존

- 제외국 수입요건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안전규제 지원이 요구



개선

-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 수출 상대국 규제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수출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

규제당국과 적극적인 위생협상 및 업체 기술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활성화**

규제외교를 통한 K-푸드 수출 저변 확대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등) 제품
신규 수출 개시('24.5월)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실사
대행('23.2월) 및 유제품·삼계탕
수출업소 등록 갱신('23.8월)



쇠고기 소량함유 식품(육수,
조미료 등) 수출 재개('23.4월)



가금육제품 수출 자격 유지
및 돈육제품 신규 수출허용
현지실사 대응('23.11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받은 쇠고기
수출 개시('23.5월)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유제품 수출 등 업계 대상
안내서(5종) 발간('23)

중남미(8개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ODA) 실시('23.10월)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 위험예측 기반 수입식품 통관검사 시행

기존

- 통계 기반 분석으로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대상 선정
 - ▶ 식품, 축산물, 수산물 분류의 통계기반 위해도 분석 모델



개선

- 최근 5년 수입식품 데이터(약 380만건)를 학습한 통계 + 인공지능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
 - ▶ 농·임산물, 가공식품 등 수입제품군별 위해요소 특성을 반영한 고위험 식품 예측모델

인공지능으로 고위험 식품을 선별,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수입식품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기존

-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안에 비치
- 민원(변경, 지위승계, 폐업) 신청 시
영업등록증 원본을 제출(방문, 우편 등)



개선

-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 상시 조회·출력 및 원본 제출 없이 바로
민원 신청 가능

민원 신청 관련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완화**
종이서류 발급·사용에 따른 자원·비용 경감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기존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 ▶ 수입·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 사용 가능



개선

- 전자상거래 형태로 신고대행업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 사용 가능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로 **영업자 시설 비용부담 경감**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수출식품등 영문증명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기존

- 위생증명서 등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을 첨부해야 하고, 분석증명서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전산발급 영문증명서는 압인이 없어 수출상대국에서 진본 미인정 사례 발생 및 신청 건당 1부만 발급 가능



개선

-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등) 및 인터넷 등으로 원본임을 확인 가능한 시험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서류로 인정
- 전산발급 시 바코드 도입하고 진위여부 확인방법 기재 및 부분 발급기능 추가

영문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으로 수출지원 및 진본 미인정으로 인한 통관 어려움 해소

영업자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 확대

기존

- ▣ (대상) 자사제조용 원료
- ▣ (신청주체) 제조업체로 한정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개선

- ▣ (대상) 자사제조용 + 외화획득용 원료
- ▣ (신청주체)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모든 영업자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개정 중

원료 수급·활용 유연화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원재활용으로 순환경제에 기여



혁신의 길 미래를 연다

2.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3.0** 과제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현행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5회 모두 실시할 때까지 기한 없이 적용

“

10년 전과 지금은 제조환경도, 기술여건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때 부적합 받은 제품이 5회까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수입하는 제품을 정밀검사 받으라는 것은 너무 부당해요

”



개선방안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의 5회 연속 정밀검사 적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
* 일반 수입식품의 안전성 재확인 주기

수입식품 안전성 재확인 주기와 부적합 정밀검사 적용 주기를 일치시켜
안전관리 형평성 도모 및 영업자 불만 해소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현행

- 해외제조업소를 자체 관리(위생점검 연1회)하는 영업자(우수수입업소)에게 통관 시 혜택을 부여 ('09~)

“

매년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야 하는데
들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혜택이 적어요
우수수입업소 혜택을 확대해주세요

”



개선방안

-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등 영업자의 안전관리 기여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
 - 우수수입업소 취소 기준(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수입한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부적합이 없는 경우 한정

안전관리 책임과 혜택을 연계,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사전 안전관리된 식품 수입 증가

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1)

현행

- OEM 수입식품등 수입 영업자는 ①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및 ② OEM수입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

제조환경·공정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구류의 현지 위생평가가 부담돼요

”



개선방안

- 기구·용기·포장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 → 3년)
* (중장기)기구·용기·포장 현지 위생평가 제외 검토
-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연장된 위생평가 기간(1년)에 실시하는 자체 위생평가를 해외제조업소에서도 실시 가능

OEM 제도 합리화로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및
OEM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조성

국내 상표를 부착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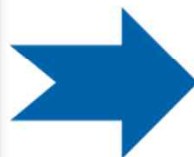
현행

- OEM 수입식품등 수입 영업자는 ①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및 ② OEM수입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

무작위표본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



개선방안

- 자가품질검사 주기 내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 식약처 지정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도 자가품질검사로 인정

OEM 제도 합리화로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및
OEM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조성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

-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

“

최초정밀검사는 무작위보다 더 많은 항목을 검사
하는데도 성적서가 면제되지 않아 불합리해요

”



개선방안

- 자사제조용 축산물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을 면제

안전성을 이미 확인한 수입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성적서 제출 면제로
영업자의 검사 비용·시간 부담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1)

현행

- 식품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사유를 해당원료를 수입한 수입자의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중단 등으로 제한

“전쟁 등 물류대란으로 식품 원료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요. 원료를 신속히 수입하고, 다른 제조사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선방안

- 원료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가공업체의 원료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용 원료의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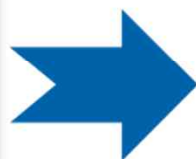
대내·외 리스크 상황에서도 **원활한 원료 수급·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물가 안정에 기여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비, 수입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가 원칙이나, 물가조절 등 사유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

“전쟁 등 물류대란으로 식품 원료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요. 원료를 신속히 수입하고, 다른 제조사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선방안

- 국내·외 가축전염병, 국제 정세변화 등 발생으로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대내·외 리스크 상황에서도 **원활한 원료 수급·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물가 안정에 기여

수입 축·수산물 안전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을 확대합니다

현행

- 축·수산물 수입신고 시 영업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
 - 국가 간 협의가 완료되어 시스템 구축 시 전자위생증명서로 대체

“

빠르고 편리한 전자위생증명을 더 많은 국가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개선방안

- 축·수산물 검사·검역 기관 간 전자위생 증명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
- 전자위생증명 적용국가 확대
 - * 축산물: 3 → 5개국(+브라질, 뉴질랜드)
 - * 수산물: 3 → 5개국(+러시아, 태국)

종이증명서 도착 지연 등 현장애로 해소 및 원본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및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식품의약품안전처